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는 화두

전인권(45)이라는 저자의 이름을 보면서 가수 전인권을 떠올렸다. 물론 똑같은 이름 탓도 있었지만 가수 전인권만큼(?)이나 솔직하고 독특한 그의 저서 《남자의 탄생》(푸른숲) 때문이기도 했다. 《남자의 탄생》은 5살부터 12살까지 자기 자신의 유년기(1960년대)를 대상으로 삼아 한국 남자의 인성 형성 과정을 꼼꼼히 탐구하고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 동시에 가장 당혹스러운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일러준 서울 합정역 사거리 탐커피숍에 들어섰을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전인권의 파격’은 없었다. 대신 머리숱이 적은 평범한 중년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당혹스러웠던 사실은 전 교수가 임파선암의 후유증으로 인한 3급 장애인이라는 것이었다. 전 교수는 1990년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임파선암 진단을 받았다. 학자로서 천금같은 30대에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친구나 학문이 아니라 암이었다.

“빈에서 돌아와 병원에서 2년, 병상에서 6년, 꼬박 8년을 환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켜보면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던 시기가 지금의 연구결과를 나오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한국사회라든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남자로 자라며 또 ‘말도 안 되는 한국의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그를 끊임없이 괴롭힌 문제들이었다. 비록 치료과정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기는 했지만 건강을 되찾은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편견 없는 김대중 이야기》를 시작으로 ‘박정희 연구’, 《아름다운 화가 이중섭》, 그리고 《남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작업은 한국사회라는 큰 틀에서 한 ‘개인’으로, ‘나’로 점점 그 범위를 좁혀오는 과정이었다. 특히 ‘의미’와 ‘재미’를 두루 갖춘 《남자의 탄생》은 그 어느 때보다 반응이 좋았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 ‘남편을 알게 됐다’ 등 비교적 반응이 긍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여성학계와 가족학계에서는 대학교재로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

해 남성들의 반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낸 후에 남자들이 모인 술자리에 가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곤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긍정 반 부정 반이었다. 우선 자기들도 잘 아는(경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수준으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몰아간 것 아니냐’ ‘나도 경험해 봐서 아는 데 그게 아니다’ 라며 저항하고 자기변호를 했다. 한국남자에게 “나는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어머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와 결혼생활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았다. 오이디푸스는 불행했고 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린 셈이다” 라든가 “일단 손을 대었다 하면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고향도 내 것이고, (중략) 직장도 내 것이 된다” 와 같은 통찰은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또 하나, 단어나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이 온몸으로 웅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인문사회학 풍토에 대한 비판이다. 전 교수가 보기에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모자의 쇼윈도’ 와 같다. 저마다 막스 베버라는 모자, 마르크스라는 모자, 프로이트라는 모자, 알튀세라는 모자를 쓴 채 누구의 이론을 누가 더 많이 알고, 또 누가 더 정확히 알고 있나로 싸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것(서양이론)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고 우리입니다. 나나 내 주변의 문제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분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그때부터 외국의 학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들 역시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교수의 작업은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실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기술하는 것이다.

사실 여태까지의 연구는 거의 전 교수 혼자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를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이래’, ‘정치학 하는 사람이 예술을 한대’ 하며 자기들과는 별개의 인간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사실 우연이었죠. 이중섭에 대한 글을 써서 이중섭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보냈는데 양이 많아서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신춘문예 응모기간인데 빨리 요약해서 투고를 해라, 당선되면 읽어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요약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렇다고 제가 미술평론가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천재라든가 광인과 같은 수식을 붙여 별개의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 라는 울타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인권 교수의 일관된 주제는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 는 데서 출발한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내 안에 김대중이 있고, 내 안에 박정희가 있고, 내 안에 이중섭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다른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별개로 취급하며 돌을 던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부대껴야 그나마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연구 역시 화합과 모색의 길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전 교수는 《남자의 탄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작업의 한 마디가 맺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큰 소재에서 작은 소재로 좁혀오면서 문제가 구체화되고 분명해진 것이다. 전 교수는 이제 그동안 해온 작업과 반대로 나로부터 시작해 다시 넓혀 이론화하는 작업에 열중할 생각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